사 설

불교여성개발원 한 돌에 부쳐

한국불교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는 여성불자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유교입국의 국시를 채택한 조선시대는 불교의 암흑기였다. 남성들은 출세하기 위해 유교를 공부했다. 통치철학과 사회윤리의 유교화는 불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러나 여성불자들, 소위 치마불교가 있었기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사회 내지 세계는 여성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치, 문화, 사회, 종교, 과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활동 공간 아닌 곳이 없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사회가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불교계는 어떠한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이 여전하고,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불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문화 콘텐츠 하나 없다.

불교계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지난해 이맘때 탄생한 것이 불교여성개발원이다. 진작 있어야할 것이 생겼기에 우리 모두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출발 당시의 거창한 구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전한 현실만이 불교여성개발원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성개발원의 활동이 기대 이하라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교여성개발원의 존재의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현실적이고 손쉬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한국사회와 인류를 위한 문화의 창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그들이 사회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때 한국사회의 미래와 인류의 문명은 진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립 1주년을 계기로 장단기 계획 속에서 연구, 개발하는 단체로 발전하길 바란다.

중흥하는 인도불교 지원하자

"개종이 아니라 '중흥'이라 해야 한다. 우리가 불법에 귀의하는 것은 우리의 옛 종교를 되찾는 것이다."

지난 4일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힌두교도 1만 여명이 불교로 개종했다. 행사의 수계법사였던 라홀스님은 이를 '중흥'으로 표현하려 한다.

옳은 말이다. 인도에서 불교의 싹이 다시 트는 것을 우리는 '중흥'이라 불러야 한다. 부처님 정각 이후 인도는 1천년을 넘어 평등과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평화스럽게 다스려져 온 나라였다.

중세이후 쇠퇴했던 인도불교가 현대에 들어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 주도로 처음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1만 여명의 집단 개종으로 제2의 부흥기에 접어들고 있다. '불법안에 우리는 하나'라든가 '계율준수'라는 구호는 그들이 불교의 참다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의 불교인구는 7백여만 명. 불자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로드 붓다 클럽(Lord Buddha Club)'이 이들 '신 불교도(Neo-Buddhist)'들을 이끌고 있으며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대 피해자 불가촉천민들의 호응은 가히 절대적이다. 하지만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의 긴장은 개종의 조직적 방해로 이어져 앞으로의 포교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세이후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 땅, 현대에도 아직 크게 개선된 바 없는 불교 성지는 불자들의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 인도불교 중흥은 자연 성지를 성지답게 가꾸는 일로도 연결될 터이다.

'우리는 선우'와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가 부처님의 나라에 싹트고 있는 이 같은 인도인들의 불심을 한국 불자들이 도와야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반긴다. '로드 붓다 클럽'과 손잡고 한-인 불교교류를 모색해 보고, 정기적으로 보시금을 보내는 등의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다.

승단의 구성 등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도불교에 어떤 방법으로의 지원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불교 지원에 나서자'는 재가단체들의 움직임에 한국 불교와 불자들의 관심을 모아보고 싶다.

신행혁신운동 나선다

중앙신도회 현대적 5계실천 역량 결집

신도단체 네트워크화…내년초 불교인대회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내년부터 재가불자 신행혁신 운동을 펼친다. 또 각 신도단체 및 직능단체간의 네트워크도 추진된다.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21일 가진 교계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신행혁신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한국불교인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밝혔다.

신행혁신위원회'는 재가불자의 신행문화 혁신을 통해 한국불교를 쇄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신도회 산하조직으로, 10인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5계 실천운동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는 재가인사로 5계 교본 개발팀을 구성해 현대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계를 정하는 한편, 5계 실천운동본부를 결성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에 5계 학교를 개설해 이와 관련한 강좌도 주2회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5계 실천 선언대회를 갖고, 하이텔 등 통신 불교동우회와 연계해 사이버 상에서 5계 운동도 펼친다.

'정보화위원회'는 기존의 단체와 개인을 조직화하는 산하 기구로, 각 신도단체 및 포교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달마넷'에서 직능단체, 사찰 신도회, 재가불자들을 하나로 묶는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중앙신도회는 또 내년 3~4월경 신도회 전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칭)한국불교인대회'를 개최해 불자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신행혁신운동에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백창기 회장을 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인터뷰 4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앙승가대 모집요강 확정

12월10일~13일 원서접수

중앙승가대가 2002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12월 3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과에 각 30명씩 모두 120명이며, 원서접수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다.

지원자격은 고졸의 조계종 및 다른 종단 스님에 한하며, 내년 1월22일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031)980-7713

한명우 기자

전국 강원교직자 연수

조계종은 19~20일 이틀간 서울 보타사에서 전국 강원 교직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의 강원 교직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번 연수회는 교수법에 대한 교육원장 무비스님의 강의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진월스님 · 동국대 강사)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민영교도소 운영

5일까지 동참의향서 접수

조계종이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20일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고, 본 · 말사와 불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민영교도소 운영은 종교 고유의 교화와 정서 순화적 기능을 활용하여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교도소 운영에 따른 종단의 포교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본 · 말사와 불자들에게 받을 제안내용은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사업 동참의사와 부지제공, 건축비부담, 교정교화 프로그램 참여 부문 등이다.

조계종은 12월 5일(수)까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및 동참의향서를 전화(02-733-4749) 및 E-MAIL(pjh65@buddhism.or.kr)로 접수 받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교도소 포교사 90명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은 17~18일 이틀간 마곡사에서 교도소분야 포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재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 교도소 포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명우 기자

현 대만평 김 영 민



함께 힘을 보태면



◇19일 의정부 회룡사 주지 성견스님과 미가사 주지 향산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과 시민연대 회원 50여명은 공사 중인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 '국립공원에 대한 테러를 중지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거세게 항의했다.

북한산 관통로 범대위 결성

공동대표 일면스님 · 최열씨

4일 서울서 대규모 시위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에 함께 활동했던 불교대책위와 시민연대가 시민, 환경, 종교단체를 아우르는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은 21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2월 4일 서울에서 발대식을 겸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대책위는 이달중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종교인 선언 등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대규모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국민대책위의 공동대표는 일면스님과 최열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천성산 고속철 노선변경"

조계종 환경위 촉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 제5차 회의가 2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위원회는 북한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봉선사를 중심으로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청와대 및 감사원 국회 환경노동위에 입장 전달, 전 종단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천성산 내원사 고속철도 관통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노선변경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